

佛教文化学会第23回学術大会

(第2回 大正大学—金剛大学校 国際学術研究発表会)

発表会テーマ『現代社会における仏教の諸問題』

現代社会における忍辱波羅蜜の実践

崔 恩 英

(金剛大学校仏教文化研究所 HK 教授)

1. はじめに

ずいぶん前、ドラマはインタビューで、チベットを中国領に変え、チベット人を難民にした毛沢東を赦すが、忘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話したことがある。毛沢東がチベットを完全に占領する前に、自分をポタラ宮に幽閉させたことを振り返りながら、自分の人生において忍辱波羅蜜を実践した時間だったことについては有り難く思っているとまで言ったそうである。その記事を読んで以来、筆者は忍辱波羅蜜とは何か、そしてそれを実践することの意義とは何であるかを考えてみたいという思いを抱いていた。

2. 忍辱と忍辱波羅蜜

2-1. 初期經典の忍辱

サンスクリット語の *kṣānti* は、中国語で忍、忍位などの意味であり、能忍、忍耐、忍辱、堪忍、忍受、安忍などいくつかの言葉で漢訳された。

『説文解字』をみると、忍は能と同じ意味であり、後には(堪)耐の意味としても理解された。それ故、能忍というのは、忍を重ねて使ったことになる。仏教辞典では忍辱は、心を安らかにして、外部からの体と心に対する侮辱や迫害に耐え、恨みを持たず、耐え忍ぶことである。忍辱は、肉体的に辛いことや精神的に耐え難いことに耐えることとして一般的に知られている。言い換えれば、忍辱とはよく我慢することという理解が蔓延している。

初期經典の『毘婆尸仏經』(T1, p.158 a21-22) には、持戒を修する上

で、忍辱が最も優れた徳目であり、能忍によって涅槃が得られるという内容がある。忍辱は布施、慈悲とともに、(出家) 修行者の諸々の修行徳目の中で、戒律を守る上で重要だという文章がしばしば見られる。特に、外部からの心身の苦痛と苦悩によく耐えることをすばらしいと認めている。それ故、やりたいことを我慢したり、やりたくないことも行ったりするような戒律を守る上で、忍という徳目は必ず必要なものとなったのであろう。それで、持戒と深く関連して説明されるのが初期經典の忍辱に関する内容である。そして、この場合、よく耐えるということは、そ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心を起こさないことと、それを受け入れることであるとする実例が『増一阿含經』に見える。

- 1) 常に忍辱を修し、対象が至っても(心を)起こさない、滿願盛明がその人である。(恒行忍辱、對至不起、所謂滿願盛明比丘是)
- 2) 我が声聞の中で第一の比丘であり、まるで地が受け入れるが如く、心に忍辱を懷く(人ありて)、曇摩提比丘がその人である。(我聲聞中第一比丘尼、心懷忍辱、如地容受、所謂曇摩提比丘尼是)

2-2. 大乘經典の忍辱波羅蜜

忍辱の実践がさらに輝きを放ったのは、仏典文学の一ジャンルである本生譚、すなわち釈迦牟尼の過去世の数多い菩薩行の話において忍辱が多く登場することによって、本格的にその地位が向上されたと考えられる。大乘仏典に受け継がれた忍辱は、初期經典における単に耐えるという意味を超え、菩薩だからこそ初めて波羅蜜が実践できるという形で展開される。本生譚の菩薩行が限らない実践となり、ついに六波羅蜜の一つに忍辱波羅蜜が数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推測される。無限なものとして想定される忍辱行が忍辱波羅蜜として設定される一方、他的大乘仏典においては怒らない心そのものを仏陀の最高の徳目とする仏陀が登場することになったが、すなわち阿閼仏である。浄土系統の一つである『阿閼仏国經』、『大宝積經』「不動如来会」に登場する阿閼は、どのような対象に対しても怒る心を起こすまいと誓願を起こし、長い年月にわたって実践した比丘が得た仏陀の名号であり(T11, p.752 a29-b4)、東方の妙喜国にいと設定されている。不動とは心が動かないという意味である。忍辱波羅蜜が時間的に無限に拡大された忍辱行を説明してくれるのに対して、東方妙喜国の阿閼

仏は怒らず揺るがない心で修行の最高の階位である仏位に到達した忍辱行を代弁してくれる。

一方、忍辱と忍辱波羅蜜との相違を文献的典拠から言うなら、空観に基づく無分別による忍辱行であるか否かにある。『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T8, p.891 a6-7)では、無分別に基づく忍辱(=安忍)が忍辱波羅蜜であることを(當知生死涅槃悉皆平等, 以無分別, 是名安忍波羅蜜多)、32種の忍辱波羅蜜の中で一番最初に説いている。『解深密經』(T16, p.705 c17-18)においても3種の忍辱波羅蜜が説かれる。第一、内外の迫害を耐え忍ぶ忍辱(耐怨害忍)、第二、あらゆる苦しみを安らかに受け止める安忍(安受苦忍)、第三、諸法の空性を如実に観察し、理解した後の忍辱(諦察法忍)であるが、第三の忍辱波羅蜜は、諸法の空性を明らかに体得した境地において実践されるものを指し、『解深密經』の3種の忍辱波羅蜜のうち、第一と第二は『増一阿含經』で示されたもの(對至不起、容受)と同じであり、第三のものだけが増加されたことがわかる。

ともかく忍辱と忍辱波羅蜜とは、ダライラマの回顧で言及されたように、無限の時間と空間において際限なく実践されるべき忍耐の内容を表していると言っても相違ないことを、仏教の典籍において見出すことができる。

3. 忍辱の現代的意味：赦しと認定

ところが、現実の生活の中で、我々は何を、どこまで、どのように耐えるべきであろうか？ 忍辱は今日の日常用語ではない。忍辱は、今日において我々が常用する言葉の中で赦しと関連付けることができと思う。では、赦しとは何か？

ある講座で、赦しの三つの段階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る。最初の段階は、私が優越な存在であるから、私より劣っている他人を赦すことである。それで、対象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歴史上の迫害を受けた聖人達、イエス、ソクラテス、孔子等がこの類に属すると言えよう。次の段階は、長い間実際に私を苦しめていたのは、対象が私にやったことを繰り返して記憶している自分の思いであることに気づき、自分自身を赦すことである。実際に私を苦しめていたのは、対象ではなく、それを繰り返して記憶する自分の思いである。故に、他人ではなく、そのような自分を認

め、赦さ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の段階は、諸法の無自性性を悟り、究極的には赦されるべき対象も、赦す自分も無くなる段階である。これは正に空観に基づいた赦し、自分と他人の区別のない赦しと言えよう。そして、こうした赦しの概念との関連から忍辱を考える場合、忍辱は忍耐よりは認めるという意味に近いと言える。すなわち、忍辱とは受け入れることである。阿含経に、心に忍辱を懐くこと、大地が（すべてを）受け入れるが如く（心懷忍辱、如地容受）といったのは、正にこれを表現している。『大般若経』において、安忍がどこから来るかと聞く文殊菩薩の質問に対し、仏陀は一切有情を受け入れることから来ると答えている（T7, p.954 a 29, 佛言安忍流出容受一切有情）。般若経は、忍辱が自分と他人とをあるがままに認める心構えという典拠を明確に示していると思われる。そして、いまだ空性に基づいていない忍辱は、受け入れることと認めることを実践する過程を絶えず積み重ねることによって、波羅蜜に移行するのであろう。

4. 現代社会における忍辱行の実践

認めることについて具体的な実践方法を考察してみよう。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により、現代人は過去百年の間になされてきたことよりも、数百倍以上、速くて広い時間と空間を知るようになった。その中で、過度な競争に苦しみを覚えつつ、次第に他人から疎外されていく日々を過ごしている現代人は、外部から与えられる数多い物質的、精神的、環境の対象に心を起こされながら生きている。私達が、外在するものにただ耐えるべきと言う意味に限定して忍辱を捉える場合、現代社会における忍辱行は、すべての人々を敗者にしてしまったり、或いは鎧をつけたロボットに変えてしまう実践になりかねない。言い換えれば、個人が耐えられない状況に遭遇する時に、ただ自分を抑えながら我慢しているだけでは、自棄になったり、平然を装ったり、現実から目を背けるような心の状態を蓄積する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ところが、まずはそのような状況を受け入れ、認める練習を実践することができれば、その次の段階として、それに耐えることが少しは容易になる。つまり、耐えるということは、受け入れて認めることを前提としている、というのが筆者の基本的な考えである。

その際、対象を認めることにも限界があるが、対象をより正しく理解す

るため、自分の状態を認めることもまた重要である。「汝自分を知れ」と言った神託と同様に、自分を知ることを強調する仏陀の教えによると、自分自身の状態を正確に捉え、それをあるがままに認める忍辱行が実践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自分自身を知るための努力を各個人が続けていくことが、忍辱波羅蜜の実践の始まりなのである。現代社会において最も求められる忍辱行は、己の体と心の状態を明らかに知覚し、それを受け入れて、その心が対象まで拡大されるように実践することである。

しかし、自分のことを知り認めることが、ただの自己合理化に止まるならば、それは忍辱行の実践とは言えない。さらに、無条件に対象に耐え、赦す忍辱行には限界がある。従って、今日の忍辱行は、過去と同じく、自分に素直でありながら誠実に守るべき徳目である。それ故に、初期経典では戒律との関連で最高の徳目として忍辱を褒め称えたのであろう。さらに、仏陀の遺言として、怠けず励んで四念処を修するようと言われたこととも関連がある。四念処（身、受、心、法念処）は、自分の体と心の状態を注視し、さらにそれを対象に拡大するものである。四念処中の三念処が、自分の体と心の状態を観察する内容からなるということは、自分の心身の状態を明らかに知ることの重要性を裏付けるものと言えよう。こうした忍辱行の実践は、究極的に、もとより、自分に明るい智慧、或いは仏性があることを信じるからこそ踏み出すことのできる第一歩でもある。結局は個人の努力による実践行に戻って来たが、自分をよく認めることができて初めて世の中をあるがままに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忍辱波羅蜜の意味なのである。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욕바라밀의 실천

최은영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 professor)

1. 오래전에 달라이 라마는 인터뷰에서 티베트를 중국령으로 바꾸고 티베트인을 난민으로 만든 모택동을 용서하지만 잊을 수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모택동이 티베트를 완전히 점령하기 이전에 자신을 포탈라궁에 유폐시켜 두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생에서 인욕 바라밀을 실천하게 했던 시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전한다. 이 글을 읽은 이후부터 필자는 인욕 바라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를 궁리해보고 싶다는 오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忍辱과 忍辱波羅蜜

2-1. 초기 경전의 인욕

범어로 *kṣānti*는 忍, 忍位이면 가능한 한역어이지만 能忍, 忍耐, 忍辱, 堪忍, 忍受, 安忍 등 여러 가지로 한역되었다. 『說文解字』를 보면 忍은 能과 같은 뜻이었으며, 이후에는 (堪) 耐의 의미라고도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能忍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중복하여 사용한 것과 같다. 불교사전에서 인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외부로부터의 몸과 마음에 대한 모욕과 박해를 참아내며 원한을 품지 않고 감당하여 참는 것이다. 인욕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과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을 참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인욕은 잘 참는 것이라는 이해가 만연해 있다.

초기경전인 『毘婆尸佛經』(T1, p.158a21-22)에서는 持戒를 하는데 있어서 인욕이 가장 뛰어난 덕목이며 能忍으로 열반을 얻는다는 내용이 있다. 인욕은 布施, 慈悲와 더불어 (출가) 수행자의 여러 수행 덕목 가운데 계율을 지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문장이 종종 발견된

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심신의 고통과 고뇌를 잘 참는 것을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기도 하는 계율을 지키는데 있어서忍의 덕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계가 인욕과 깊이 관련되어 설명되는 것이 초기 경전의 인욕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때 잘 참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실례가 『增一阿含經』에 보인다.

1) 항상 인욕을 행하여서 대상이 이르러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만원성명비구가 이런 사람이다. (恒行忍辱, 對至不起, 所謂滿願盛明比丘是)

2) 나의 성문 가운데 마치 땅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마음에 인욕을 품은 것이 제일인 비구니가 있으니 담마제비구니가 이 사람이다. (我聲聞中第一比丘尼, 心懷忍辱, 如地容受, 所謂曇摩提比丘尼是)

2-2. 대승경전의 인욕바라밀

인욕행의 실천이 더욱 빛을 낸 것은 불전문학의 한 장르인 본생담, 즉 석가모니의 과거 생의 수많은 보살행 이야기에서 인욕이 많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상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대승불전으로 계승된 인욕은 초기경전에서 단지 참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보살이라야 비로서 바라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본생담의 보살행이 끝없는 실천행으로 이어져 마침내 6바라밀의 하나에 인욕바라밀이 될 수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무한으로 상정되는 인욕행으로 인욕바라밀이 설정되는 한편, 다른 대승불전에서는 성내지 않는 마음 그 자체를 붓다의 최고의 덕목으로 삼은 불타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촉불이다. 곧 淨土系統의 한 경전인 『阿闍佛國經』, 『大寶積經』 「不動如來會」에 등장하는 阿闍은 오직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을 실천한 비구가 얻은 붓다의 명호이며 (T11, p.752a29-b4), 동방의 妙喜國에 있다고 설정되었다. 不動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인욕바라밀이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된 인욕행을

설명해주고 있다면, 동방 교회의 아축불은 성내지 않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수행의 최고의 階位인 佛位에 도달한 인욕행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한편, 인욕과 인욕바라밀의 차이는 문헌적 전거로 볼 때는 空觀에 기반하여 無分別에 의한 인욕행인가에 아닌가에 있다.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T8, p.891a6-7)에서는 무분별에 바탕한 인욕 (=安忍)이 인욕바라밀이라고 (當知生死涅槃悉皆平等, 以無分別, 是名安忍波羅蜜多) 32종 인욕바라밀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에 설명하고 있다.

『解深密經』 (T16, p.705c17-18)에서도 3종류의 인욕바라밀을 설명한다. 첫째는 内外의 박해를 감내하는 인욕 (耐怨害忍), 둘째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안인 (安受苦忍), 셋째는 제법의 空性を 여실하게 관찰해 알고 난 후의 인욕 (諦察法忍)인데, 세 번째 인욕바라밀이 제법의 공성을 확연하게 체득한 상태에서 실천되는 것을 말한다. 『解深密經』의 3종류의 안인바라밀에서 처음과 두 번째는 『增一阿含經』에서 제시했던 것 (對至不起, 容受) 과 같은 형태이며, 세 번째만이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인욕과 인욕바라밀은 달라이 라마의 회고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무한한 시공간에서 끝없이 실천되어야 할 인내의 내용을 대표한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임을 불교의 전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인욕의 현대적 의미 : 容恕와 認定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인욕은 오늘날 일상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용하는 단어가운데 인욕은 용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서란 무엇인가?

어느 강좌에서 용서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역사상 박해받은 성인들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랜 기간 실제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대상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나 자신의 생각임을 알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한 나 자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그러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제법의 무자성성을 깨달으면, 궁극적으로는 용서할 대상도 용서하는 나도 없어지는 단계이다. 이것이 바로 空觀에 기반한 용서, 나와 남의 구별이 없는 용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용서의 개념과 관련하여 인욕을 생각할 때, 인욕은 인내보다는 인정의 의미가 더 크다. 곧 인욕은 받아들이는 것(受容)이다. 아함경에서 마음에 인욕을 품은 것이 대지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心懷忍辱, 如地容受)고 한 것이 이러한 표현이다. 『大般若經』에서는 안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묻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 붓다는 일체유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답한다. (T7, p.954a29, 佛言安忍流出容受一切有情) 반야경에서 인욕이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자세라는 전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아직 空性을 바탕으로 하지 못한 인욕은 수용과 인정을 실천하는 단계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바라밀에 이르게 되는 것이리라.

4. 현대사회에서 인욕행의 실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방법을 생각해본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것보다 수백 배나 빠르고 넓은 범위의 시공간을 현대인은 알게 되었다. 이 속에서 과도한 경쟁에 힘겨워 하며 점차 남과 소외되어 가는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물질적, 정신적, 환경적 대상들에 의해 마음을 일으키며 살아간다. 우리가 외재적인 것들을 단순히 참아내야 한다는 의미로만 인욕을 이해할 때, 현대사회에서 인욕행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거나 갑옷을 입은 로봇으로 변형시키는 실천행

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부딪혀오는데 그저 나를 억누르면서 참기만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만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거나 외면하는 마음상태를 축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조금은 쉬워진다. 결국은 참는다는 것이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생각이다.

이때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한 神託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욕행이 실천되어야 한다. 곧 자기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실천을 개개인이 계속하는 것이 인욕바라밀 실천의 시작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욕행은 각자 자기 자신이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마음이 대상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알고 인정해주는 것이 자기 합리화에 머문다면 그것은 인욕행으로서의 실천이 아니다. 또한 무조건 대상을 참아가면서 용서하는 인욕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인욕행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솔직하면서 성실하게 지켜가야 할 덕목이다. 그러기에 초기 경전에서 계율과 관련하여 가장 으뜸되는 덕목으로 인욕을 칭찬했던 것이리라. 또한 붓다의 遺訓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四念處를 수행하라고 하셨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4념처(身,受,心,法念處)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주시하고 나아가 그것을 대상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4념처 가운데 3념처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心身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함을 증거해 준다. 그러한 인욕행 실천은 궁극적으로 본래 나에게 밝은 지혜 혹은 불성이 있음을 믿기에 내딛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결국 개인의 노력에 의한 실천행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을 잘 인정해야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다는

것이 인욕바라밀의 의미이다.

